부다페스트 세계유산 선언문

지난 6월28일, 1972년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부다페스트 세계유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 문화유산 563개, 자연유산 144개, 복합유산 23개를 포함한 125개 회원국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730개의 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172개의 협약국을 보유한 이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국제 협약으로서 협약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국 총회에서 6년마다 선출된다. 총회에서는 매년 협약 가입국이 신청하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심사한 유산을 목록에 추가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의 실행을 담당한다. 목록에 있는 유산의 보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해당 유적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협약국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긴급조치와 전문가 훈련에 드는 비용, 기술 협력 도모를 위해서 매년 미화 4백만 달러 정도를 세계유산기금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부다페스트 세계유산 선언문" 전문

I. 2002년 유엔이 정한 "세계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 유산 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유네스코, 1972) 채택 30주년을 축하하며;

II. 지난 30년간 이 협약이 뛰어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있어서 국제 협력에 유일한 도구로 작용했다는 점에 유의하며;

III. 부다페스트 세계 유산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한다:

1.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우리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보편성 및 그 결과로서 이 협약이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모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도구로서 세계유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2.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은 미래의 세대에게 그들의 정당한 유산으로 전해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의 공통 유산에 대한 위협의 증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행할

것이다:

a)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신속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유산 보호 관련 국제단체의 참여도 장려하며;

b) 협약 체약국들이 각국의 다양한 유산을 대표하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을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c) 세계 유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존, 유지 및 개발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 세계 유산이 사회와 경제 발전 및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적절히 활용하며;

d) 유산을 해치는 것은 동시에 인류의 정신 및 세계의 유산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유산 보호에 협력하며;

e) 의사 소통, 교육, 연구, 훈련 및 인식 제고 전략을 통해 세계 유산을 널리 알리고;

f) 세계 유산을 확인, 보호 및 관리하는 모든 단계에 우리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IV.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지지를 위하여 모든 파트너의 협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관심 있는 모든 단체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장려할 것을 요청한다:

a) 뛰어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대표적이고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목록으로서의 세계유산 목록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b)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을 보장하고;

c) 세계유산협약 및 관련 협약의 적절한 이해와 실행을 위하여 세계유산 목록에의 신청과정 상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인 역량 형성 수단을 개발토록 하며;

d)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지원, 참가 및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V. 우리는 2007년에 있을 제 31차 회의에서 위의 사항들 및 공약 이행의 성취도를 평가할 것이다.

부다페스트, 2002년 6월 28일